# 민족과 세계의 연대 방식
## - 황석영의『바리데기』를 중심으로*

박승희**

‖ 차 례 ‖

1. 서론
2. 민족 신화의 이주
3. 민족 서사의 원형과 세계적 연대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황석영의『바리데기』에 나타난 이주의 문제를 민족적 서사와 세계적 연대적 측면에서 살핀 것이다. 민족국가의 경계를 단순히 해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에서 민족적 서사의 세계적 소통 가능성을 소설『바리데기』는 이주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소설 속 이주의 과정을 크게 세계의 중심이면서도 서구의 주변부인 중국과 서구 자본주의의 중심인 영국을 배경으로 자본의 억압과 폭력 속에서 민족적 서사의 세계적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것은 이주 과정이 민족과 세계의 또 다른 연대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민족 주체가 세계시민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 국제이주, 바리데기, 민족국가, 세계시민, 민족 서사

---

* 이 연구는 2009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서론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는 국가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고 있다. 더욱이 전 지구시대 세계화나 글로벌리즘에 대한 요구는 민족국가의 향방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족국가의 내부를 다양화하거나 그 경계를 완만하게 만드는 등 새로운 기획이 시도되는 것이 그 예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민족주의나 민족국가 담론은 서구 근대의 부정과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비판받거나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주지하다시피 탈민족주의 담론의 성장과 깊이 관련된다. 탈민족주의 담론에 의한 민족주의 비판은 이미 오래된 것인데, 민족주의가 대내적으로 억압적이며 대외적으로는 공격적 담론이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는 민족주의의 특정한 형태인 인종적 민족주의나 억압적 민족주의를 민족주의의 본질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지현 등은 민족주의를 파시즘의 한 요소로 이해하고 민족국가의 억압으로 인한 개성의 말살과 권력적 획일화를 지적한다. 나아가 혈통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나 시민적 민족주의를 모두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이념으로 간주하고 있다.[1)]

하지만 탈민족주의 담론은 민족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민족국가를 지나치게 초역사적인 것으로 단순화 하는 경향이 있다. 탈식민론의 해석과는 달리 실제로 민족국가는 역사적인 현실 위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를 제안하거나 실험함으로써 근대 민족주의는 타 국가 내지 민족과의 연대도 모색한 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민족국가의 틀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동아시아적 연대를 모색하는 일련의 논의는 매우 흥미롭다. 특히 백영서의 “국민국가를 감당하

1) 임지현·사카이 나오키(2005), 『오만과 편견』, 휴머니스트, p.172; 임지현(2004), 「포스트 민족주의 대 열린 민족주의」, 『제8회 인문학 학술대회:인문학은 말한다』, 이화여대 인문학연구원, p.28. 참조.

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중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는"[2] 인식을 통해 국민국가의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론과 최원식의 "서구주의와 민족주의를 가로질러" 한반도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민족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3] 그것은 민족국가나 민족주의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미래 가능성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세계가 당면한 여러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상황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등은 민족국가의 외부적 연대 가능성을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제시하면서[4] 민족국가와 세계시민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대안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5]

이러한 민족국가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가 요구되는 현실적인 지점이 바로 민족 및 인종 간 이주 문제이다. 이주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타민족국가 내부로 편입하는 실질적인 사람 간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 민족국가의 경계를 해체하는 자유로운 이행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민족국가와 민족국가 사이의 이질성과 이중 언어 문제, 문화적 충돌과 가치관의 대립, 인종 혹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등장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주를 둘러싼 문제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적 이슈이면서도 결국 민족국가와 세계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탈식민주의 담론처럼 민족주의나 민족국가에 대한 협애한 이

2) 백영서(2002), 『동아시아의 귀환-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비, 2002. p.16.
3) 최원식(2004), 「동아시아론의 좌표-서구주의와 민족주의 사이」, 『인문학연구』,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184.
4) Yael Tamir(1993), 『Liberal Nation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7.
5) 그런 의미에서 최근 거론되는 "전 지구적 자본에 저항하는 전 지구적 연대"는 民族主義와 世界主義의 충돌과兩立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탈식민론의 추상적 관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와 세계화나 글로벌리즘처럼 세계주의에 대한 지나친 낙관으로 이주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 혹은 민족국가와 세계시민주의를 연결하고, 민족주의의 세계적 가치와 세계시민적 이념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족주의를 비판한 기존의 탈식민론은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탈식민론에서 주장하는 민족주의의 억압성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고려한 이후에 가능하다. 또한 팽창적·공격적이라는 주장은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양립 가능성[6]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탈식민론을 수정하면서 최근 민족주의의 이중성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버마스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Nation(민족, 국민)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공적 시민들의 의욕된 Nation은 민주적 정통성의 원천인 반면, 동포들의 탄생적 Nation은 사회적 통합을 받쳐준다. 시민들은 자기의 독자적인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한다. 동포들은 공통된 언어와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 속에 이미 존재한다. 평등한 권리 공동체의 보편주의와 역사적 운명 공동체의 특수주의 사이의 긴장이 Nationalstaat의 개념 속에 박혀 있다"[7]는 하버마스의 발언은 민족주의가 지닌 이중적 의미를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 이는 민족국가가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 양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하나는 세계보편을 지향하는 '시민정치 공동체'라면, 다른 하나는 종족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문화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종족적 특수성을 매개로 보편의 가치를 획득하는 일이야말로 민족국가의 또 다른 가능성인 것이다.

한편, 한나 아렌트는 "어떤 종류의 조직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

6) 나종석,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헤겔연구』26호, 한국헤겔학회, 2009.12, pp.170~171.

7) 위르겐 하버마스, 황태연 옮김, 『이질성의 포용』, 나남출판, 2000, p.145.

리”[8]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적 공동체인 시민적 민족국가를 통해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확장되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동궤에 놓거나 인권, 평화와 같은 세계보편적 가치를 민족의 역사적 특수성과 접목시키기도 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 세계 시민 공동체와 연대하는 민족국가의 새로운 구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문제는 민족국가와 세계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국민 혹은 민족으로 호명되면서도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것”[9]임을 확인하는 세계시민의 실체를 찾는 일이다.

그 실체 중 하나가 바로 국제 이주자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소설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실체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작품의 생산이나 논쟁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특별하다. 한국문학의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 작품들은 우선,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그 내적 흐름을 오랫동안 형성해오고 있는 이주문학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라는 존재를 통해 제시하는 세계적 연대와 소통에 관한 문학적 상상력은 민족국가와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주는 한국문학의 큰 흐름에서 의미 있는 문제틀(problematic)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국가적 경계를 넘어가는 이주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문학의 지리적 영역 확장의 계기로 포착한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민족국가와 세계가 접속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세계시민적 가치를 토대로 세계적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문학의 새로운 상상력이자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8)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한길사, 2006, p.532.
9)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8, p.105.

최근 하종오의 시나 강영숙의『리나』, 정도상의『찔레꽃』 전성태의「국경을 넘는 일」, 「늑대」, 박범신의『나마스테』, 방현석의「존재의 형식」, 황석영의『바리데기』 등은 문화적 혹은 지리적 경계를 확대하고 민족과 세계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문학적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10] 특히 황석영의『바리데기』는 이주자의 삶을 통해 민족과 세계의 접속 과정에 나타난 민족의 특수성과 전 지구적 자본의 문제, 그리고 소통과 연대의 과정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 글은 황석영의『바리데기』가 제시한 이주의 문제를 민족과 세계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즉 전 지구적 자본화 과정에서 이주를 통해 제 민족문화가 세계적 연대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기능하는지, 나아가 국제 이주민이 세계시민이 되는 과정에 민족국가의 특수성과 세계보편적 가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민족 신화의 이주

황석영의 소설『바리데기』는 북한, 중국, 영국을 배경으로 민족의 내·외부와 대륙, 지역을 횡단하며 전 지구적 자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분열, 테러와 인종 갈등 등 세계적 문제를 경험한 이주 여성의 이야기이다.

10) 양진오는 최근 논문에서 "국민국가의 범주를 확장하는 경계 확산과 더불어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한국소설들을 세계문학적 가능성 성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소설을 일국의 논리를 뛰어넘으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네이션의 논리, 즉 민족국가나 민족주의의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 세계문학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 문제들도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연대와 소통, 세계시민주의 등이 민족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만 추상적이고 공허한 세계의 확인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현대소설의 전 지구적 확장은 세계시민 공동체와 소통하는 민족국가의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양진오(2007),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 『한민족어문학』51집, 참조.

작품은 두 번의 이주 과정을 통해 아시아의 한 여성이 경험하는 세계적 국면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탈북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9·11 테러, 런던 테러 등 세계적 상황과 만나면서 한 여성이 어떻게 세계시민으로 표상되는지를 작품은 잘 보여준다. 전 지구시대의 존재 방식인 이주의 문제는 서구 자본주의의 주변(중국)과 내부(영국)에서 일어나는 자본의 세계적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 두 번의 이주 과정을 통해 잘 나타나는데, 폐쇄적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서구적 근대의 상징인 영국으로의 이주 과정이 그것이다. 이 두 번의 이주에서 주인공 '바리'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주변부와 서구 근대자본주의의 현장을 경험한다.

한편『바리데기』는 지리적·문화적 차원의 경계를 벗어나면서도 주인공인 '바리'로 상징되는 민족 신화의 원형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해 주인공 '바리'는 물리적 혹은 육체적으론 탈민족적 상황에 놓이지만, 그 정체성은 여전히 민족국가의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바리데기'는 '말미, 바리공주, 바리데기' 등으로 불려지는 서사무가로서 한반도 전 지역에서 구송된 황천서사무가이다. 특히, '바라데기'는 고통과 수난의 인물로 죽은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저승까지 가 생명수를 구해오는 치유의 존재이다. 따라서 '바리데기'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쳐 이를 해결하는 치유자로서 전통 무굿의 원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황석영이 이러한 '바리데기'를 이주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이유는 민족 신화의 세계적 확장과 함께 민족 신화의 인류 보편적 세계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소설『바리데기』는 그런 의미에서 민족국가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세계 자본에 의해 겪게 되는 온갖 고난과 역경의 현실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바라데기'라는 민족적 서사를 중심으로 세계와의 소통과 영적 치유 과정을 또 다른 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 지구

적 자본화의 상황에서 민족과 세계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영적 존재에 의한 세계 정화를 통해 인간 내면의 소통과 신뢰 등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영역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은 주인공 '바리'의 이주 과정을 중심으로 민족국가의 균열과 해체, 자본의 횡포와 빈인간적 상품화 과정 등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제 민족적 문화 원형 간의 소통, 세계보편의 공동 가치를 지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 이주 과정에서 민족국가의 경계가 어떻게 균열되고 해체되는지를 작품을 통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바리데기』에서 주인공 '바리'는 신화의 바리가 황천을 횡단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 이주 여성으로서의 아시아와 유럽 등을 횡단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물론 주인공 '바리'는 신화의 바라데기처럼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지옥과 같은 현실 세계를 횡단한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동아시아의 폐쇄적 국가의 내부 균열로부터 시작된다. 사실 북한은 민족 신화의 생성 지점이자 '바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첫머리에 제시된 고향 청진의 서정적 풍경은 민족 신화를 배태한 지리적 공간에 대한 작가의 심미적 이해이며 나아가 민족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인문지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 어려서 청진에 살았다.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바지의 단독주택에 살았다. 봄이면 마을 빈터의 마른 잡초들 사이에서 한무리의 진달래들이 이 묶음 저 묶음 다투어 피어나 아침저녁 노을에 붉게 타오르고 드높은 동편 하늘가에 아직도 눈을 하얗게 얹은 관모산이 아랫도리를 안개 속에 감추고 떠 있었다.(7쪽)

어린 시절 고향의 산과 바다에 대한 서술은 이후 이주 과정에서 주인공 '바리'가 품고 있는 고향에 대한 내면 풍경이다. 어릴 적 물리적 공간은 "그냥 바다를 내다보는 게 좋"은 주인공의 내면 풍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된다. 한편, 북한에서 청진은 물건이 풍부한 고장이면서 국경에 연(連)해 있는 곳으로 외부와의 소통이나 교역이 빈번한 곳이다. “무엇보다도 국경이 가까워 물자교역이 빈번해서 일반 인민들도 바깥물건을 수월하게 만져볼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은 이후 주인공 ‘바리’의 이주적 삶을 암시한다. 그러나 청진시절의 ‘바리’가 바라보는 민족국가의 외부와 이주 과정에서의 외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청진과 국경 외부와의 교역은 국가 간의 소통이자 상호 연대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를 통한 국경 외부와의 접촉은 이질성과 차별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북한의 균열이 외부와의 접촉이나 다양한 교류 등을 통해 진행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내부 사정과 깊이 관련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북한의 내부 균열은 표면적으로 홍수재해와 거듭되는 흉작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물난리에 기근에 사람이 온데 사방에서 죽어 나가는” 상황과 “일을 때려 치우고 식량을 구하러 나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은 북한 사회를 “밤마다 들판과 마을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헛것”들의 모습으로까지 이미지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서 북한의 이완과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작품은 이야기 하고 있다. 일명 ‘미꾸리 아저씨’로 통하는 중국인 장사치의 왕래와 그가 가지고 온 물건들, 북한 사회의 해체는 이러한 자본의 틈입과 무관하지 않다. 교류와 소통을 통한 연대의 풍요로운 만남이 아니라 자본의 확장이 북한 사회의 이완을 부추기는 과정에 북한 내부의 기근과 이를 해결할 국가 운영 능력의 부재 상태가 결국 북한 인민의 이탈과 탈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서구 자본 혹은 국가와의 대척점에 서있는 지정학적 이유에서도 그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 자본시장 내부로 편입되지 못한 북한의 주변부적 상황이 초래한 것이기도 하다.[11] 서구적 근대의 주변 국가로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구도에서 소외된 북한의 내부 현실은 『

바리데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서구적 근대 자본의 주변부에서 그 내부로의 이주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실제로 『바리데기』에서 서구 세계로 접근해 갈수록 주인공 '바리'의 삶은 더욱 비참한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서구의 주변부, 혹은 그 내·외부 어디에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자본에 의한 구획, 단절, 분리의 근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황석영이 작품의 출발점으로 북한을 설정한 이유 또한 서구적 근대의 관점에 의해 전 지구를 구조화하기 보다 세계의 주변부로부터 세계를 통합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문학적 상상력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민족 신화에서 발현된 '바리'의 영적 능력에서 출발한다. 『바리데기』에서 '바리'는 일곱 번째 여자 아이로 태어난다. 태어나자마자 숲에 버려졌던 태생의 내력 때문에 이름 붙여진 '바리'는 할머니의 '바리데기' 이야기를 자신의 운명으로 내면화 한다. 그리고 "세상의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겪다가 할머니가 내 이름을 바리라고 부르게 된 뜻"(12쪽)을 알게 됨으로써 '바리'이 이름에 내재한 민족적 정체성을 세계적 국면에서 확인하게 된다. 또한 영적 존재와의 소통이 가능한 '바리'의 능력은 세계의 모든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민족의 정신 세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신 세계는 '바리' 집안 가계에 내려오는 영매의 세계로 작품에 그려져 있다. 고조할머니 때부터 할머니와 바리로 이어지는 이 영적 세계는 현실과 저승 세계를 오가며 인간과 세상만물의 조화와 평안을 구현하는 영역이다. 『바리데기』에서 '바리'는 할머니는 물론 집에서 키우는 개 흰둥이, 그 새기인 칠성이와도 교감과 영적 대화가 가능하다. 그것은 흰둥이가 버려진 '바리'를 다시 물고 집으로 돌아온 인연도 관련되지만 열병 이후 '바리'에게 생긴

11) 양진오는 논문에서 북한을 '서구적 근대의 주변에 위치하는 국가로 고정'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양진오(2007),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 『한민족어문학』 51집, p.79.

영적 대화의 능력이 일상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타"나는 능력은 일상의 내면에 감추어진 우리의 민족적 정신 영역을 다시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다. 이 정신 영역은 말 못하는 '숙이' 언니와의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집에서 키우는 개와도 대화가 가능한, 자연 세계의 영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저승 세계와 소통하고 과거도 투영할 수 있는 현실 극복의 소통 방식인 것이다.

작품에서는 북한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바리'의 영적인 소통 능력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난다. 기근이 심해지자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간 '칠성이'를 찾는 대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리'의 영적 소통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나는 담 모퉁이에 쪼그려앉았다. 그리고 눈을 꼭 감고 칠성이를 생각했다. 어둠속에 부연 빛이 조금씩 열리더니 길과 들판이 보이고 바람에 쓰러지고 넘어진 옥수수밭 고랑이 나타났고 그 안에 하얀 짐승이 보였다. 우리 칠성이가 네발을 모로뻗고 누워 있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어둠속을 보면서 말했다.(51쪽)

위의 영적 세계는 민족 서사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원형성은 자연 세계와 인간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사무가 '바리데기'는 자연이 만든 여러 시공간 속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는 정신과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가 '바리데기'의 원형성은 소설『바리데기』의 '바리'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이주는 바로 이러한 민족적 원형성의 세계적 확장이자 세계적 소통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기근과 재해에 의한 연명적 이주라는 현실적 상황과는 달리, 이주의 내적인 의미는 소통의 세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제 '바리'는 민족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고 있지만 고난의 이주 여성으로서 세상

과 접촉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중국으로의 이주는 '바리'에게 전면적인 가족의 해체와 본격적인 시련의 시작을 의미한다. 중국의 반자본 반사회주의적 국가 체제는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욕망을 표출하는 세계로, 또 한편으로는 자본의 주변적 형태를 보여주는 국가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이 자본의 주변부에서 자본의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국가적 욕망이 내재된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축적 과정과 함께 인간의 상품화 내지 타자적 배제 과정을 동시에 진행한다. 여기서 배제는 그 사회로부터의 이주의 조건이 되며 자본주의적 욕망의 대상화로 전락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바리'는 중국으로의 이주 이후 가족의 완전한 해체를 경험하고 결국 이주 여성으로서 중국 사회의 주변부에 편입된다. 그 구체적인 편입의 현장은 '낙원'이라는 '안마방'이다. 안마방은 손님의 입장에서는 '낙원'이지만 '바리'나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주변부적 삶의 확인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안마방에서 '바리'가 경험한 것은 자본의 강력한 배제나 인종,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니다. 오히려 종업원들 간의 연민과 포용의 감정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바리'와 각별한 사이인 '샹' 언니와의 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삶의 연대 의식까지로 이어진다. 배제나 갈등이 아닌 연대적 삶의 관계가 가능한 것은 그들 모두가 자본의 주변적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주변부라는 삶의 조건은 상대에 대한 적대적 이해보다는 연민과 신뢰에 의한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사실 인류 사회가 전통적으로 구축해온 생활 방식이며 각 민족은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정신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서구적 근대에 의한 단절과 배제의 역사가 이러한 전통적 삶의 연대적 방식까지도 해체시켜 버린 것이다.

작품 속 '바리'는 샹 언니와 그녀의 남편 쩌우에게서 가족적 연대감을 느낄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것은 이미 '돈 세상'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자본의 하위주체[12] 간에 이루어지는 연민이자 연대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자본으로부터 배제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적 연대감과 소통의 감정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이러한 연대의식마저도 중국의 자본주의적 욕망에 의해 결국 해체되고 만다. 샹 언니 가족과 따롄으로 이사를 하면서 '바리'는 고난한 이주 과정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가족의 복원 내지 새로운 가족의 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샹 언니와 바리는 따롄에서 국제 이주를 해야만 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샹의 남편 쩌우가 차린 마사지 숍이 동료의 배반으로 문을 닫게 되고 샹과 '바리'는 중개업자들에 의해 비밀리에 국제 인신 밀매로 팔려가게 된다. 중국 따롄은 주변부의 하위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터전이 아니라 자본의 폭력적 매매가 거래되는 현장이며 지구적 차원의 이주가 이루어지는 중국 자본주의의 욕망의 통로였던 것이다. 이 욕망의 구조는 인간을 상품화함으로써 실현된다. 국제 이주 중개업자인 '뱀단'은 '바리'와 샹을 인격이 아닌 상품으로 계산한다. 즉 그녀들의 몸은 자본의 상품이며 욕망의 대상일 뿐이다. 욕망의 통로 속에서는 모든 것이 자본의 상품이 된다. 결국 강제 이주의 근거도 자본축적의 욕망인 것이다.

> 밥은 하루에 아침마다 한 끼를 준다. 물도 한 바께쓰뿐이다. 각자 아껴가며 연명해야 할 거다. 영국까지는 한 달이 걸린다. 도착해서 마지막 열흘만 견디면 새로운 땅에서 맘껏 돈벌며 살 수 있다. 샤먼에 도착하기 직전에 행동요령을 가르쳐 줄 것이다.(126쪽)

12) 하위주체는 일반적으로 "생산위주의 자본주의 체계에서 중심을 차지하던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포괄하면서 성, 인종,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바리'의 경우, 동양의 가장 폐쇄적인 주변부 국가인 북한 출신의 여성이란 점에서 하위주체의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여성 하위주체에 관해서는 태혜숙(2001),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pp.116~118. 참조.

‘바리’가 경험한 국제 이주의 시작은 반인간적 상품 이동에 다름 아니다. 이주 여성과 밀항자들을 태운 밀항선에서 일어난 폭력과 강간, 반인간적인 폭력과 통제는 자본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용변도 그 자리에 선채로 보았고 밥은커녕 물 한모금도 얻어먹지 못한” 상황은 비단 밀항선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본의 주변부에서 그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품의 반인격적 현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바리에게 이 폭력적 상황은 몸과 넋이 분리되는 경험의 순간으로 기억된다. 그 경험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죽은 할머니와 칠성이를 따라 바리공주로 저승을 횡단하며 국제 이주 과정의 폭력적 장면을 만나는 것이다. 이 장면은 현실과 저승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매우 독특한 이미지로서 현실의 폭력성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토마토와 양배추가 든 상자 속에 숨막혀 죽은 시체들”이나 “어두운 컨테이너 속에서 숨이 막혀 괴로워하는 사람들”, “벽을 긁어대는 여자의 얼굴”, “분노에 찬 얼굴들”, “벗은 몸 위에 치마와 상의를 뭉쳐 감싸안고 쪼그려 앉아 입을 막고 울음을 참는 여자”, “낮은 천장 위에 형광등 하나 켜 있고 재봉틀 앞에 앉아 산더미 같은 옷을 박고 있는 여자들” 등, 이미지로만 묘사되는 이 장면들은 국제 이주 노동자의 이주 과정을 압축한 것이다.

또 다른 분리의 경험은 바리가 영매의 존재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당연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만 가능하다. 밀항선에서 바리는 엄청난 폭력적 상황 속에서 모든 “살이 사라지고 뼈만 남은 육신을 흔적”만 남은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할머니와 칠성이 다시 뼈를 모아 육신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본다. 이는 서사무가에서 ‘바라데기’가 고난과 역경을 겪는 뒤 생명수를 찾아가는 과정과 연결된다. 즉 ‘바리데기’와 같이 영매로서의 존재적 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불가항력적일 때, 인간은 육체적 현실을 버리고 넋이나 영혼의 힘으로 그 현실을 이겨내는

이 방식을 우리는 민족 정신사에서 흔히 발견하는 것이다. 현실이 불가해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일 때, 민족신화나 전통적 민담 속에는 땅과 하늘의 영혼성을 믿고 이에 기원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한다. 영적 세계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중적 지혜를 민족적인 서사물들은 주로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매인 바리는 이주 과정에 죽었거나 한맺힌 삶을 풀어주고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바리는 영매로서 영적 치유자가 된 것이다.

바리의 밀항선 경험은 영국 이주 이전에 영적 치유자로서 세계를 대면하는 준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고통과 절망을 치유하고 민족의 영적 존재로서 서구 근대의 중심으로 이주한 것이다. 이는 민족 서사를 근거로 서구적 근대란 세계를 재구성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영국으로의 이주는 표면적으로 자본의 전 지구적 전면화 과정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이동, 서구적 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의 이주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민족 서사와 그 원형적 정신 세계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서구적 세계와 조우하는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 3. 민족 서사의 원형과 세계적 연대

『바리데기』에서 중국에서 영국으로의 이주는 장소 이동 의미를 넘어선다.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이주가 주변부에서 또 다른 주변부로의 이동이었다면, 영국으로의 이주는 서구 중심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주변부에서 서구 세계로 통칭되는 세계로의 확장과 전환을 상징한다. 이는 또한 다양한 세계적 문제와의 충돌이자 또 다른 세계 이주자들과의 만남을 의미한다. 『바리데기』에는 영국 이주 과정과 이주 이후 '바리'가 접하게 되는 세계

적 문제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인간의 상품화 문제나 성적 학대, 이주 이후 '바리'가 세계에서 유입된 이주자들을 만나면서 목격하거나 체험한 사건과 세계적 이슈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이슈들 속에서 일어나는 무슬림에 대한 종교적 왜곡이나 9·11 테러와 런던 테러에 의한 이주자들의 삶의 위기 상황은 결국 서구적 근대의 중심에서도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것은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서구의 주변부에서 이주한 세계적 하위주체로서, 서구 자본주의의 내부로의 이동이 지리적 이동일 뿐, 결국 이주자들이 서구적 주체로서 전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바리와 같은 비서구 동양의 이주자인 경우, 서구의 주변부까지 확장된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의 희생물로서의 이주란 점에서 결코 서구적 근대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으로의 이주가 연명적 차원이었다면, 영국으로의 이주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비주체적 상품의 이동에 다름 아닌 것이다.

당연히 이주자들의 삶은 불확실하며 자신의 존재성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거나 규정되고 만다. 성과 인종, 계급 등 사회적 정체성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관계에 의해 구분되고 배제된다는 말이다. 영국에서의 바리의 성과 인종, 계급적 신분 또한 모두 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으로 들어온 바리와 중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치된 것도 성별로 매매되는 인신 매매의 현장이다. "차이나타운 거리 뒷골목"에서 바리와 중국인 여성들이 강요받은 것도 매춘이다. 육체 이외의 상품적 가치가 없는 주변부 여성의 가치는 매춘뿐인 것이다.

육체는 자본주의적 시선 앞에서 하나의 사물일 뿐이다. 차이나타운 거리 뒷골목에서 이주 여성들의 몸을 벗기고 있는 "뚱뚱한" 백인 아줌마와 "우리를 데려간 사내" 들의 시선은 제국적 자본이 육체화된 모습에 다름 아니다. 백인의 시선에 동양 여성은 하나의 상품이거나 복종의 타자일 뿐이다. 그것은 오리엔탈리즘이 제국적 자본의 속성이며 전 지구적 자본의 시대에

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 바리와 샹 등 비서구 여성들의 몸은 식민화하는 제국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여성들의 성적 차별은 물론 인종적, 계급적으로도 열등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차별은 이주자들의 노동 행위 속에서도 잘 나타난다. 바리가 사창가를 벗어나 베트남인 '루'의 식당에서 일하는 과정에서도 영국의 자본주의는 바리를 철저히 착취 구조 속으로 배치시킨다. 여기서 비서양 이주 노동자의 인종적 차이를 차별화하는 과정이 세계도시 영국의 논리이며 자본의 속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의 열흘 이상을 그 집 식구들과 말도 나누지 않"는 상황에서 "새벽 한시가 넘어 모두들 문을 잠그고 퇴근한 다음" "준비실의 탁자에 비닐을 깔고 담요 한 장을 덮고" 생활하는 바리의 모습은 대화 단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의 인종적, 계급적 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서구의 주변부에서 이주해온 비서구적 타자인 바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비서구인 바리의 삶은 비서구 이주민 대부분의 삶으로 보편화된다. 식당 주반장인 베트남계 '루 아저씨' 또한 밀항을 했으며 체류비자를 얻는 데 십일년이란 세월이 걸린 것도 모두 비서구 이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의 결과이다. 바리가 거주하는 램버스 구역의 연립주택 주민들 또한 대부분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들 대부분 서구의 주변부에서 온 이주자들이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루나 언니, 나이지리아인 흑인부부, 중국인 요리사, 필리핀 청소부, 폴란드인 가족, 무슬림인 압둘 할아버지와 알리 등이 그들이다. 대부분 불법 이민자들인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이나 육체 노동을 하며 영국의 변두리에서 집단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영국 내부에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그 외부로 추방당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공유하며 영국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이란 서구 중심의 하부에 유입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재배치가 영국으로서의 이주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주자들은 세계화의 상징처럼 램버스 구역

이나 엘리펀트 앤 캐슬 거리를 다양한 색채로 재구성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이 이러한 폭력적인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대항적 인식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연립주택 주인인 인도 남자처럼 영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하거나 루나 언니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영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자로서의 자기 정체성보다 서구 사회로 편입하고자 하는 또 다른 제국적 욕망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바리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하는 민족적 정신 세계를 통해 다양한 이주자들과의 대화나 소통을 모색한다. 그것은 우선, 발마사지라는 육체적 접촉이 실현하는 소통과 대화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리와 에밀리 부인과의 만남과 소통 과정이 그 첫 번째 경우이다. 에밀리 부인은 대영제국 귀족의 후손으로 이주자나 영국의 하위 계층들을 하녀로 두고 있는 상류층 인물이다. 이주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대화나 연대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그녀는 “켄징턴의 홀란드 파크 부근에 있는 대저택”에 살며 과거 대영제국의 영광을 상징한다. 마사지 손님인 에밀리 부인과 바리는 표면적으로 손님과 마사지사의 관계이며 나아가 비서구 이주자와 대영제국 귀족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바리는 자신의 영적 세계, 즉 영매적 세계에서 에밀리 부인의 슬픔과 제국주의 영국의 은폐된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에밀리 부인의 개인적 슬픔과 대영영국의 역사가 오버랩되면서 나타난다. 부인의 유모 베키의 환영과 흑인 수탈의 이미지가 하나로 연결된 것은 대영제국의 상징인 에밀리 부인을 보호하는 유모 베키와 흑인을 수탈하는 영국 제국주의의 역사가 결국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산의 바위벽마다 벌거숭이의 흑인들이 연기처럼 여기저기 뭉쳐서 몰려 있는 게 보인다. 그들의 검은 몸은 진흙을 뒤집어썼고 어깨에 얹은 포대자루를 끈으로 엮어서 이마에 질끈 동였다.(...) 구덩이 위의 빈터에도 수천명의 흑인들이 짐을 지고 행진중이다. 땅굴 속에서는 곡괭이와 삽으로 벽을 파내

고 있다.(177쪽)

어디선가 사다리가 끊어지며 수십명이 구덩이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총소리가 들리고 연이어 산발적으로 이어진다. 사방이 쥐죽은 듯하다.(178쪽)

'바리'가 바라보는 제국주의 수탈의 현장은 곧 베키의 조상을 에밀리의 조상들이 수탈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베키는 에밀리의 보호자가 된다. 수탈자의 집에서 그 후손을 키우고 보호하는 이 역설은 수탈의 역사를 넘어선 또 다른 관계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것은 교감과 소통이 만든 세계를 의미한다. 지옥에 떨어진 에밀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여주는 주술사 베키는 분노의 존재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의 위치에 서 있다. 그녀는 오히려 에밀리의 보호자로서 영적 세계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이주자 '바리'와 주술자 베키는 교감한다. 또한 에밀리와 '바리', 베키가 함께 교감한다. 이 모든 것은 제국적 자본도시 영국의 현실을 치유하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이다. 그것은 '바리'의 영적 세계, 즉 영매적 정신 세계가 세계의 정신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서구 이주자가 침탈의 역사를 지닌 흑인의 영혼과 만나고 대영제국 귀족의 영혼까지도 연결되는 이 연대감이야말로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인 것이다. 사실 이 연대 의식은 인류의 내면에 잠재된 제(諸) 민족의 원형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구 자본주의의 내부로 유입된 이주자들을 경계 외부로 추방하거나 배제하는 서구적 근대의 정치학과는 달리, 이주자들은 각기 민족적 자질과 영혼의 동질성으로 서로 간의 연대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리의 "할머니가 말해주던 그분(천지만물을 주관하는 하늘님)이나 압둘 할아버지가 말한 이분(알라와 무함마드)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서도 확인된다. 종교나 민족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적인 지점부터 동질적인 연대감을 지닌 세계문화의 다양성 속에는 소통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감은 해체된 가족을 복원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원천적인 원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파키스탄계 압둘 할아버지의 손자인 알리와 바리의 결혼은 민족은 물론 불법이민자, 동양 여성이라는 '바리'의 현실적 한계와 경계를 뛰어 넘는 것이다. 종교, 인종, 서구적 자본의 경계를 넘어 민족과 세계가 새로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서의 결혼인 것이다. 영국의 주류인 백인들의 세계에서 배제되거나 상품으로 전락한 동양의 한 여성과 무슬림이 가족을 구성하며 서구가 배제한 타자들 간의 새로운 연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바리와 알리의 결혼은 혼종적인 민족문화 교류를 표상한다. 소설『바리데기』에서 묘사된 '바리'와 알리의 결혼 과정에서 풍속과 방식의 차이에 의한 낯선 이질감이나 적대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차이와 혼종의 풍속에서 친·인척의 연대감과 지인들 간의 정겨움을 더욱 절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주의 조건은 민족문화의 우월성이나 원칙보다 서로 간의 다종적, 혼종적 문화 연대감을 훨씬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구적 자본의 차별과 억압을 벗어나 민족과 세계가 연대하고 소통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와 소통의 가능성은 또 다른 현실적 시련에 직면한다. 9·11 테러로 인한 全 세계적 분열과 대립의 상황은 이주와 관련하여 더욱 복잡한 상황을 야기한다. 9·11 테러는 단순한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特定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 분열의 발화점이자 절정이면서 또 다른 차별과 폭력의 조건이 된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억압, 폭력, 전쟁이 그것이다. 영국으로 이주한 '바리'와 알리의 삶에도 9·11 테러란 세계적 상황은 이별과 가족의 해체로 연결된다. 알리의 동생 구스만이 반미 전사가 되어 파키스탄으로 떠나고 알리는 동생의 행방을 찾던 와중 테러리스트로 오인 받아 미군에 의해 관타나모 기지로 끌려간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결국 '바리'를 세계적 이주자의 표象으로 등장시키

게 되는 것이다. 즉 '바리'는 가족 해체와 폭력, 배제와 억압의 이주를 상징하는 세계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바리'는 민족 서사에 의해 탄생한 민족 정신의 원형질이다. 이 민족적 원형이 민족의 지리적 경계를 벗어나 세계로 이주하면서 전 지구적 자본에 의해 차별과 억압, 폭력을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바리'는 민족적 정신 세계를 통해 세계 이주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연대의 세계를 구현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는 분열과 갈등의 현장이다. 자본에 의한 폭력과 성적 차별, 이주자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다. 바리는 이러한 서구 자본의 세계를 결코 거부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매로서의 바리는 영적 세계와 현실을 오가며 세계와 제(諸) 민족이 지닌 인류 보편의 정신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간다. 즉 그녀는 서구 자본에 의한 차이의 정치학이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내부에서 소통과 연대의 세계를 상징하는 영적 존재로 남아 있다. 바리는 민족과 세계의 연대적 만남의 표상으로서 이주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소설『바리데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구송(口誦)되던 서사무가를 모태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의 주인공 '바리'는 전통 서사무가 '바리데기'의 현실적 재현으로써 국제 이주 여성의 표상으로 등장한다. 소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혼 구원의 생명수를 찾는 '바리데기'의 여정을 국제 이주의 고난 속에서 삶의 소통과 연대를 모색하는 바리의 모습을 통해 재현한다. 민족국가란 경계를 넘어 국제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리'의 존재는 소설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의미로 각인된다. 국제 이주는 일면 일국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넘어선 것이지만 그 내적 구조로 볼 때,

민족과 세계의 만남 혹은 소통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서구 중심의 全 지구적 자본화 과정에 비서구 이주자들의 만남과 내적 연대감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인류 혹은 제 민족의 정신 원형 속에 내재한 세계적 연대란 보편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서구 자본 중심의 균열과 차별을 극복하고 세계시민사회를 실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바리데기』는 이런 연대의 가능성을 신자유주의, 탈북, 이주, 인종적·성적 차별, 테러 등 전 지구적 사건들 속에서 구현한다. '바리'로 표상되는 민족 신화의 원형적 세계, 즉 영적 대화와 치유, 민중적 소통 방식, 인간적 연대가 가능한 세계는 서구 자본의 폭력과 차별, 배제의 조건 속에서도 세계적 연대를 모색한다. 작품에서 '바리'는 북한과 중국, 영국을 중심으로 두 번을 이주 과정을 경험한다. 특히 민족 신화의 원형 세계를 상징하는 '바리'의 이주는 민족국가의 영토 확장이나 경계 해체를 넘어 민족적 원형 세계와 세계의 만남으로 의미화 된다.

그것은 첫째, 탈북과 중국 이주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폐쇄적 국가 운영과 기근, 세계화의 불균형적 구조로 인한 탈북 과정은 주인공 '바리'의 가족 해체로 이어진다. 가족 해체는 곧 민족국가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제 북한은 중국 등지로 연명적 탈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하지만 이주자 '바리'에게 탈북은 지리적 국가 경계를 벗어난 것일 뿐,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바리'는 민족 신화의 원형적 세계로부터 내림받은 영적 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자신 스스로 민족성을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이주자 '바리'에게 중국은 비서구 주변부적 삶의 연대와 지구 자본의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국가로 제시된다. 하나는 소통과 연대의 내면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폭력과 억압의 현실이다. 여기서 소통은 자본의 외부에서만 가능한 하위주체들의 인간적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현실은 신뢰와 연대의 인간 내면을 상품화된 육체로 전이시켜 버리는 자본의 세계이다. '바리'의 두 번째

영국으로의 이주는 결국 이 자본의 현실이 만든 상품의 이동이자 서구적 근대의 중심으로의 이주를 의미한다.

두 번째 이주는 세계 도시 영국을 중심으로 비서구와 서구 간의 차별과 차이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예각화 한다. 비인격적 상품 이동으로서의 이주와 서구적 근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역사와 그 현실을 소설 속 '바리'는 경험한다. 하지만 '바리'는 서구적 근대 자본, 세계도시 영국이 배제하거나 타자화 한 이주자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모색함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내면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새로운 가족의 재구성이며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족 신화의 정신 원형으로서의 '바리'의 영적 세계는 세계 이주자와의 소통과 연대를 실현하는 내적 동력이 된다.

서사무가 '바리데기'는 민족내부의 민중적 문화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설『바리데기』는 이를 모태로 한 민족과 세계의 만남, 이주와 연대의 과정을 서사화 한 것이다. 이는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극복하는 한 계기로, 일국의 논리를 지양하는 새로운 문학적 실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의 서사적 흐름 내부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민족 신화의 영적 세계는 민족과 세계의 특별한 연대를 모색하는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 '바리'는 세계시민의 등장이자 민족적 정신 세계의 세계적 구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황석영,『바리데기』, 창비, 2007.

2. 논저 및 단행본

나종석,「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헤겔연구』26호, 한국헤겔학회, 2009, pp.170~171.

백영서,『동아시아의 귀환-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2002.

심진경,「한국문학은 살아있다. 소설가 황석영과의 대화」,『창작과비평』가을호, 2007.

양진오,「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한민족어문학』51집. 2007.

임지현,「포스트 민족주의 대 열린 민족주의」,『제8회 인문학 학술대회 : 인문학은 말한다』, 이화여대 인문학연구원, 2004, p.28.

임지현·사카이 나오키,『오만과 편견』, 휴머니스트, 2005, p.172

태혜숙,『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pp.116~118.

세일라 벤하이브,『타자의 권리-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이상훈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8, p.47.

위르겐 하버마스, 황태연 옮김,『이질성의 포용』, 나남출판, 2000, p.145.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옮김,『전체주의의 기원』, 한길사, 2006, p.532.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8, p.105.

Abstract

## Solidarity of Nation and World through Migration

Park, seung-hee

This study looks into the communications and connects between nation and world through national migration shown Hwang Seok-young's 『Baridegi 』. If criticism and skepticism on nation-state and nationalism raises the lack of communications, conflicts, and impossible coexistence between nation and world, nation and world cannot but be contrary. However, the study found out world's universal values such as freedom and equality is possible to be connected to national specialty as the historical community in that migration is a global issue beyond nation-state and is eventually made by relations between strong identity of nation-state and worl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 of migration in a new approach of communications between identity of national culture and world in Hwang Seok-young's 『Baridegi』. It looks into how mental solidarity between national cultures goes through violence and suppression of global capitals shown in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forms world solidarity. Furthermore, it examines how national identity affects the process where international migrants become global citizens. It is to look at the possibility of world solidarity inherent in mental identity of nation through a main character of 『Baridegi』 'Bari', and seek for the method to overcome conflicts and discrimination of capitalism and realize global civil society.

Key-Words : Migration,『Baridegi』, International migrant, Nation-state, world citizen

박승희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214-1번지
전화번호 : 053-810-2127/010-3815-8749
전자우편 : bround33@ynu.ac.kr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0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12월 15일 게재 확정됨.